

문화의 향기가 나는 도시 "이천"

도자기, 쌀, 복숭아, 온천, 충·효·열의 고장 이천을 찾아 나섰다.

어디를 가도 단아한 산과 들이 반기는 곳, 비옥한 옥토가 근본이 돼 이
루어진 이천은 풍요로움과 역사적 예술의 힘을 승화시킨 다양하고 깊이
있는 문화축제로 많은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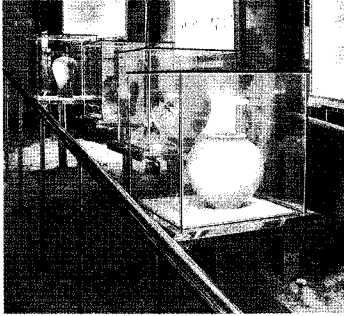
글. 편집부

제16회 이천 도자기 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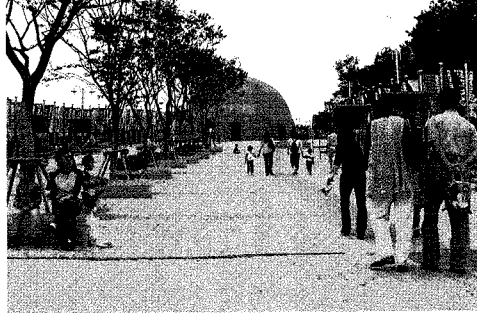
매년 9~10월경 개최되는 이천 도자기 축제는 행사의 규모와 운영면에서 그 우수성을 인정받아 전국 500여
문화관광 축제 가운데 문화관광부 집중축제로 선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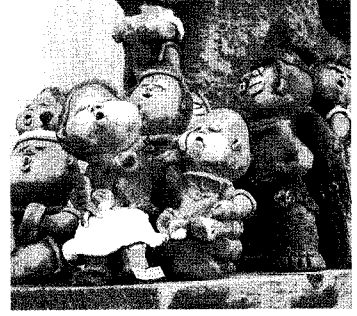
남한강의 지류인 북하천과 청미천이 흘러 평야의 구릉지대가 잘 발달된 이천은 예로부터 재해와 재난이 없는 지역으로 이름이 있다. 특히 이천의 땅은 비옥하기 이를 데 없어 “이천쌀”은 진상미라 하여 임금에게 올려졌으며 복숭아와 함께 전국 최고의 맛을 자랑하고 있다. 이천은 세계적 문화유산인 도예의 고장으로 거듭나기 위해 2000년 도자기 엑스포를 개최하였으며 2001 세계도자기엑스포의 장을 열면서 세계 문화유산의 고장으로 거듭나고 있다.



전시된 도자기들



이천 도자기행사장 입구



귀여운 공예품들

드넓게 펼쳐진 산밭자락에 저수지와 그 위로 손님을 맞이하는 아름다운 설봉공원 도자기 축제장이 보인다.

금번 축제는 흙과 불의 축제라는 타이틀로 9월 6일부터 9월 29일까지 24일간 설봉공원 엑스포단지에서 열리게 된다. 우리문화의 체험으로 도자기 엑스포 행사장, 도예촌, 민속촌, 도립박물관 등을 견학할 수 있으며, 문화와 미술의 만남의 코너에서는 작가 이분열 선생의 작가 교류회 등도 열리게 된다. 이태호 미술평론가의 세미나, 작품제작과 관련한 워크샵, 각종 유명 예술단체의 초청을 통한 초청공연 등 다양한 볼거리도 제공하게 된다.

이천 도자기축제는 이천 시민의 장이며, 관광객이 축제의 주인공이 되는 체험관광으로 매년 내·외국인 관광객이 대거 유입, 환상적이고 역동적인 축제의 한 마당이 펼쳐진다.

그곳에는 한국도자기 메카 “이천 세계도자기센터”가 있다.

한국도자의 다양한 경향과 발전 과정 등을 살펴볼 수 있는 곳으로 개관 이후 국내외 많은 관광객이 찾는 명소로 각광 받고 있다. 특히 2001 세계도자기엑스포에서 선보였던 주옥 같은 세계각국의 현대도자기작품을 한 자리에 모아 상설전을 개최하고 또한 세계 현대도자의 양대 조류인 생활과 조형의 분류체계를 적용하여, 생활도자와 조형도자를 체계적으로 전시하고 있다. 또한 이천 도자센터 도예공방에서는 가족, 학생, 일반인을 대상으로 직접 도자기를 만들어 볼 수 있는 도자 체험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도자기를 만드는 시간은 개인차가 있어 대략 1~2시간 정도가 소요되는데 내가 만들고 싶은 작품을 미리 머리 속에 그리고 나서 성형, 즉 물레 돌리기 작업을 한 다음 모양이 만들어지면 도자기를 가마에 넣는데 도자기 작업의 백미는 바로 물레 돌리기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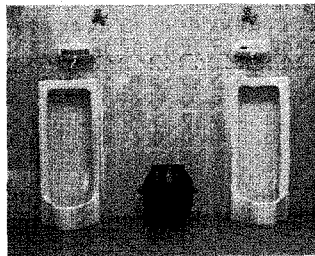
조금이라도 소홀히 했다가는 금방이라도 형체가 우스꽝스럽게 변해버리지만 그만큼 심혈을 기울이고 정성을 들이는 물레 작업이야말로 도자기 작업의 참 맛을 느끼게 해준다. 한 가마가 다 채워질 때까지 기다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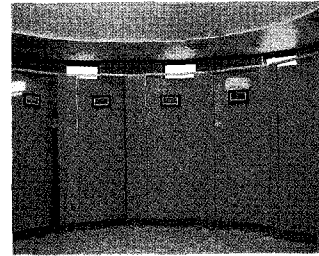
이천 공중화장실 외부 전경



이천 공중화장실 외부 전경



이천 공중화장실 남자 화장실



이천 공중화장실 여자 화장실

다가 도자기를 굽기 때문에 정확히 언제 굽는지를 모르는게 조금은 지루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의 작품을 감상하며 시간을 보내노라면 금세 순서가 돌아온다.

아름다운 축제에 손색이 없는 공중화장실은 곳곳에 잘 정돈되어 이용객을 맞이하고 있었다.

행사장 중턱에 위치한 두개의 커다란 둥근 지붕모양의 공중화장실, 많은 사람이 이용했을 법한데 주변은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마치 도자전시장으로 착각이 될 만큼 전통모양의 자태를 드러내고 있었다.

자연과 함께 어우러진 주변환경, 화장실 이용객의 수를 고려한 시설규모, 또한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한 다양한 내부시설의 특징으로는 비데의 설치와 작은 그림액자 등, 편안함과 여유로움마저 느끼게 하였다. 이렇듯 드넓은 행사장에는 4개의 다양한 모양과 기능을 갖춘 공중화장실이 있었으며 또한 어느 곳이든 장애인을 배려한 전용화장실을 마련한 점 등은 행사장을 찾는 내·외국인에게 좋은 인상과 아름다운 한국의 이미지를 전해줄 것으로 기대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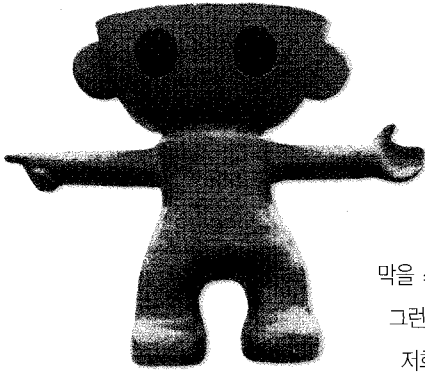
자녀들에게는 체험 교육이 되고 연인들에게는 영화 같은 드라마틱한 경험을 할 수 있는 도자기를 직접 만들 수 있는 곳

이천 시내로 접어들기 전에 만날 수 있는 이천시 신둔면은 이천 도예촌 중에서도 도자기의 본고장이라고 일컬을 만큼 아름다운 도자기가 눈길을 끄는 곳. 그 가운데에서도 도로변에 자리한 해강 도자기 미술관과 고려도요, 이조요, 관주요, 세창도예연구소, 한국도요, 청파요, 향산동예연구소, 지선도요, 지강도요 등은 외국인 전용관광기념품 판매업소로 이천을 대표하는 도예 전시장이라 할 수 있다.

그밖에 이천에는 매년 4월 초순경 이천시 장호원읍 진암리 복숭아 과수재배 농업인 및 지역사회단체에서 시작한 작은 행사인 “장호원 복숭아 축제”와 “산수유 꽃 축제”가 있으며 이천의 진산인 설봉산의 이름을 붙여 시작된 “설봉문화제”는 전통문화의 계승과 향토문화 보존의 맥을 이어가고 있다.

세계적인 도자기의 명성답게 문화예술의 도시로서 보다 차원 높은 조각공원을 조성키 위해 매년 열고 있는 “이천 국제 조각 심포지엄” 또한 이천의 명물로 소개되고 있다.

이천 도자기의 역사를 돌아보다



(이천도자기 축제의 마스코트 토아)

인류가 처음 토기를 만들기 시작하면서부터 좀더 견고하고 편리하며 아름다운 그릇을 만들려는 의지는 끊임없이 도자기의 발달을 이끌어 왔다. 처음 만들었던 토기는 물이 새어나오고 쉽게 깨어지는 것이었지만 점차 개선된 원료와 높은 온도에서 구워내는 기술로 발전하여 토기보다 견고하고 쓰기 편리한 도기를 만들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도기도 약간의 물이 스며들고 표면이 거칠기 때문에 이러한 결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 유약의 개발은 필수적인 것이었다. 유약의 사용으로 도기의 표면에 얇은 유리질 막을 씌움으로써 물이 스며들지 않고 표면이 매끄러운 그릇의 제작이 가능해졌다.

그런데 유약의 발명에서부터 세계의 도자기문화는 양분되기 시작하였다.

저화도 유약을 채택한 오리엔트 지역에서는 (화도 유약에는 납이 포함되어 인체에 유해하다) 사람이 직접 사용하지 않는 관상용의 장식품이나 건축 자재들을 주로 만들었지만, 고화도 유약을 쓰는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음식용 그릇이나 일상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도구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도자기가 생

활문화에 차지하는 비중이 컸다.

따라서 오리엔트 지역의 저화도 도기가 장식적이며 다채로운 색채를 사용하는 감상적 쾌락을 위한 것이라면 동아시아 지역의 고화도 도기는 그의 실용적 특성에 의해 인간의 생활을 풍족하게 해주고 삶을 함께 하는 동반자로서 삶을 구현해 주는 실용적인 미술로 등장하게 되었다.

동아시아지역에 위치한 우리나라도 일찍부터 세계 도자에 뚜렷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 토기가 발생한 때는 이집트, 서아시아, 인도, 중국과 비슷한 기원전 600~5000년 경이다. 당시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토기는 서아시아와 중국의 도기 문화와는 계통을 달리하는 빚살문토기문화로 한반도 전역에 넓게 분포하면서 발전을 하였다. 기원전 1000년경부터는 한반도에 중국 도자의 영향이 미치기 시작하면서 그 이후부터 우리나라의 도자는 중국의 도자와 함께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세계 도자 문화에 선구적 위치를 갖게 되었다.

기원전 300년경부터 고화도 경질도기의 제작법이 습득되고 도기의 질도 다양화되고 용도도 다양화되어 일상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원료의 것보다 높아졌다.

기원 후부터 6세기 후반에 이르는 동안 경질도기의 제작법이 일반화되고 나무의 재를 원료로 하는 고화도 화유가 제작되기 시작하며 중국에서 전해진 저화도 연유의 기술도 받아들여 한층 질적 향상을 이룩하였다. 고려시기에 생산하게 된 청자를 출발점으로 우리나라의 자기 역사는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조선시대의 백자와 분청사기, 민가에서 제작되어 생활속에 오랫동안 함께 해 온 옹기 등을 통해 우리나라 도자는 예술미와 실용미를 이어오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국의 미술과 조형의식을 알기 위하여 한국의 도자기에 초점을 맞춘다.

그 원인은 한국의 도자기가 한국인과 같이 살아온 삶의 구현체이며 한국인의 생활과 의식속에 넓게 자리하고 있는 삶의 역사를 대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